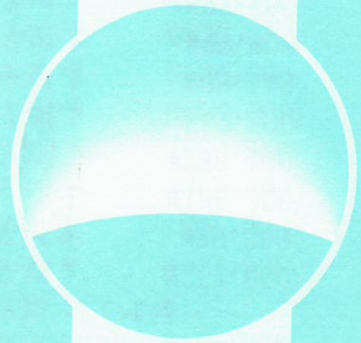




예금(겸 자동대출)·신탁

우리은행 since 1899

년 월 일	적요	찾으신 금액	맡기신 금액	잔 액	취급점
1	서초소방서	계좌번호 1005-981-800009		₩1,586,857	
2	20171229대체	₩8,847	12월이자반납	₩1,578,010	서초남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
16					
17					
18					
19					
20					
21					
22					
23					
24					



3

₩1,578,010



조선의 마지막 황태자, 은행장으로 나서다!

황실자금과 고종황제의 전폭적인 지시로 설립된 우리은행은 창립 초기 은행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이 1902년부터 1906년까지 제2대 은행장을 지냈습니다.

잔액란에 '-' 표시된 금액은 대출금 잔액임

